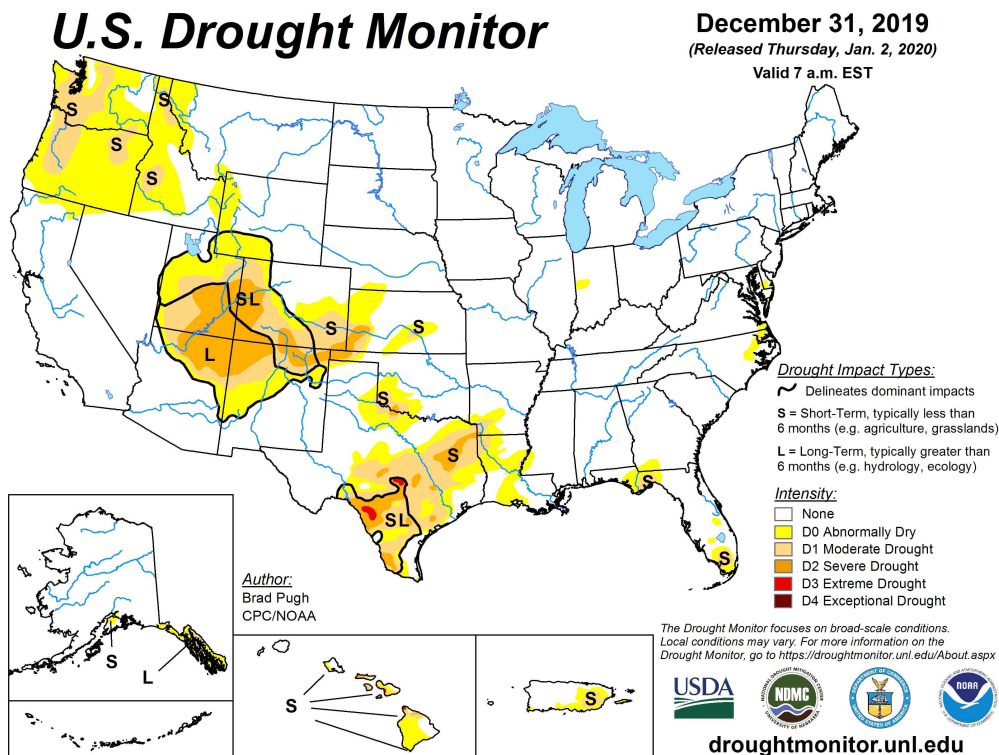


1월 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1)

□ 미국 기후 현황(12/29~1/4)

추가로 내린 얼마의 눈이 미국 북중부를 덮었으나 나머지 미국 중부 지역 대부분은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를 경험했다. 대조적으로 텍사스 해안에서부터 위스콘신까지 이르는 선을 따라서 그리고 그 동쪽으로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다. 미시시피 계곡 아래쪽과 인근에 저지대 홍수를 일으킬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다. 한편 동쪽 옥수수 벨트에 내린 비 때문에 밭과 사육장은 계속 진흙탕 상태가 이어졌다. 남북 다코타 동부에서부터 오대호 위쪽 지역까지 지면에 눈이 계속 남아 있어서 수확 노력을 곤란하게 하고 있었다. 12월말 기준으로 사우스다코타에서는 생산자들이 옥수수 재배 면적 중에서 90 %를 수확한 반면, 노스다코타의 옥수수 수확은 48 %였다. 같은 날씨에 해바라기 수확은 노스다코타에서는 66 %가 사우스다코타에서는 87 %가 끝났다. 서부에서는 북태평양 연안에서부터 로키 산맥 북부까지의 지역에 한정해서 상당량의 비가 내렸는데 북서부의 눈덩이 별판은 평균보다 훨씬 적은 양이 남아 있었다. 고원 중부와 남부는 지난 주 가뭄을 완화시켜주는 비가 내린 이후에 날씨가 다시 건조해졌다. 2019년이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동쪽 절반 전역은 온화한 날씨가 계속 이어졌고 먼 서쪽에서 온화한 날씨가 발달했다. 중서부, 대서양 중부, 북동부 주들을 포함한 넓은 구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최소 10° F 이상 높았고 북서부 내륙 전역은 평년보다 10° F 정도 높았다. 반면에 포 코너스 지역은 날씨가 쌀쌀해서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낮게 유지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12/29~1/4)

■ 유럽: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고기압이 대륙 대부분에 건조한 날씨를 가져왔으나 북부와 동부 끝에 있는 재배 지역에는 비와 눈이 내렸다. 지역적으로 건조한 일부 북동부 재배 지역을 제외하면,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최근 매우 습한 날씨가 이어진 이후에 화창한 하늘과 평년 근처 또는 그 이상의 기온이 휴면 또는 반휴면 중인 겨울 밀과 유채에게 좋은 조건이 되었다. 지난 60일간 폴란드 중부와 북서부를 비롯하여 동독 일부가 지역적으로 건조하여 토양의 수분 보유량이 계속 부족하기는 했지만 수분 공급량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대조적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최근에 내린 적당하거나 강한 비 (지역적으로 지난 60일간 평년의 200 % 이상) 덕분에 출현기 및 영양생장기의 겨울 곡류가 양호하게 발달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한편으로는 유럽 대륙의 많은 곳에서 건조한 날씨가 보고되었지만 먼 북부와 먼 동부의 경작지에는 일련의 빠르게 움직이는 기상 교란이 비와 눈 (2-10 mm 액체 등량, 지역적으로 더 많이)을 내리게 했다. 남독일과 서발칸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더 시원한 날씨 (평년보다 1-3° C 낮음)가 안착했으나 그 밖의 지역은 평년 근처 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었다. 유럽의 주요 겨울 작물 재배지는 아주 따뜻한 12월을 지나면서 보호해주는 눈 덮임이 없는 상태로 있었다.

■ 호주: 남퀸슬랜드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국지성 소나기 (대체로 1-10 mm, 지역적으로 그 이상)가 내려서 표토 수분을 지역적으로 상승시켜주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여름작물의 전망을 거의 개선시켜주지는 못했다. 뜨거우면서 종종 바람이 부는 날씨가 심각한 장기 가뭄의 영향을 악화시켜서 면화와 수수의 상태를 계속 나쁜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고, 더욱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파괴적인 들불이 시골 동호주의 일부를 태우고 있었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 C 높았고 최고 기온은 높은 섭씨 30도대에서 40도대 중간 범위에 있었다. 호주에서 겨울 작물 수확 작업은 거의 다 끝나서 호주의 먼 남부와 먼 남서부에 야외 작업이 조금 남았을 뿐이었다.

■ 아르헨티나: 중부와 서부 농경지역에 다시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려서 최근에 심은 여름 곡류와 유지류에게 필요한 수분을 시기적절하게 상승시켜주었다. 총 강수량 25-50 mm (지역적으로 100 mm 초과)의 이 비는 살타에서부터 남쪽으로 코르도바를 지나, 동쪽으로 뻗어 낮은 파라나 강 계곡을 지나 우루과이까지 내렸다. 대부분의 주요 농경 지역에 최소 10 mm 이상이 기록되기는 했지만, 아르헨티나 다른 지역은 비가 대체로 보다 가볍게 내렸다. 여기에는 이전에 건조한 남부 밀 지대였던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곳에 내린 소나기들은 2차로 심은 콩의 발아에 필요한 수분량을 상승시켜주었다.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는 전체적으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근처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아서 낮 최고 기온이 중앙 아르헨티나에서는 며칠 동안 섭씨 낮은 30도대에 도달하였고 기후학적으로 더 따뜻한 북부 지역은 40° C까지 올라갔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2일 현재 옥수수과 콩은 각각 82 및 86 % 파종되었고 면화는 97 % 파종되었다. 한편 밀은 88 % 수확되어 작년 속도 (86 %)보다 약간 앞서 있었다.



■ 브라질: 이 나라에서 보다 북쪽에 위치한 농경지에는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와 여름 더위 덕분에 콩과 기타 여름작물들에게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지만 남부의 핵심 생산 지역에서는 건조가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우가 매우 가변적이어서 유의한 소나기 (총 강우량은 25 mm 이상, 많은 지역들은 50 mm 이상 기록)가 내리는 중에 건조 포켓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다. 중앙-서부 지역 (마토 그로소, 고이아스, 마토 그로소 도 술)의 기후 조건들은 일찍 심어서 종실 비대기에 있는 콩에게 대체로 유리했다. 북동부 (마란하오에서 남쪽으로 서바이하를 지나기까지)에는 대체로 적당하거나 강한 비가 내리는 양상을 보여주어서, 대개 재배 기간 중 적합하지 않게 내리는 강우 양상 때문에 피해를 입곤 했던 만파 작물들에게 아주 필요했던 수분량을 상승시켜주었다. 대조적으로, 남부의 몇몇 생산 지역은 여름작물이 생식기 및 종실 비대기에 있었는데 계절을 벗어난 더위와 건조가 2주째 계속 발생하여 시기적으로 부적당했다. 이 건조는 특히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우려가 되었는데 일부 작물이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도되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1월 2일 현재 옥수수와 콩은 각각 95 및 99 % 파종되었고 출현한 옥수수의 70 %가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으며 콩은 15 %가 개화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다.